

남북정상보다 어려운 시장·지사 만남...실무협업의 정례화를

■광주시·전남도 1년 3개월만에 상생발전위원회

1년 넘게 기다렸던 만남이었지만, 기대만큼 시·도민에게 상생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랜만에 광주·전남 상생 협력과제들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중요한 현안은 다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착상태에 빠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선연적 합의에만 머무르는데다, 한전공대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꼽혔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공동 유치 방안은 아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부족하다보니 유치의 질박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무협의를 자주 갖고 광주와 전남의 '인식 차'를 좁혀가면서 상호 이해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께 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사업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사안을 상호 협의를 통해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내지도 못한 방사광 가속기 공동 유치=전남도도가 이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신규 협력과제로 올려놓았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동 유치 안건은 공식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4세대 원형방사광 가속기는 한전공대와 산·학·연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최첨단 랜드마크 연구 환경을 갖추기 위한 필수 시설로 꼽힌다. 특히 포항의 3세대보다 방사광의 밝기와 크기가 100~1000배 뛰어나고 50개 이상의 실험을 동

교감 없어 현안에 대한 온도차 민감현안 피하고 계획도 없어 '방사광가속기' 논의도 못해

시에 수행할 수 있는 '4세대'라는 점에서 국내외 유명 연구진을 광주전남으로 끌어들이고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해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와 함께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핵심 연구기반시설로 삼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실무협상에선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광주시의 반대로 시·도지사의 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양측의 충분한 교감이 부족하다보니 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애초 시·도는 실무협상 등을 통해 안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간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핫 이슈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면서 핵심 현안을 비껴간 '선연적' 합의에 그쳤다.

◇정기적인 만남·소통으로 지역발전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모야야 1년 3개월 만이지만 시·도지사가 모처럼 지역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감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날 상생발전위원회에 올린 현안 발굴과 조정을 위해 개최한 실무협상은 고작 한 차례에 불과했다.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 실무협상 외에 실무 담당자들이 만남도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에 불과했다. 고

작 3차례 만남만으로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따져 우선 순위나 공조,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 발굴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진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면서 소통과 접촉으로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수백년 교류...아시아는 세계의 미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연쇄 정상회담...신남방 외교전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 열리는 한-미포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아세안은 이날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며 협력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게 된다.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부산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개막일인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에는 첫 행사로 벡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지와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 행사를 소화한 뒤에는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아세안 환경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 외에도 각국 대표단, 우 리측 정부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에 머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다자회의 일정과 동시에 문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모두 연쇄 정상회담을 하는 등 양자외교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날 오전 하사날 볼키아 파르티다 쿠알라룸푸르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브라운 쟀 오자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태국은 영원한 우방이며, 한국과 태국의 피로 맺은 우의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국은 가장 중요한 신남방정책 협력파트너"라며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 대응·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8개 신규 협력과제 포함

25일 개최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신규 협력과제로 8가지가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광주시, 전남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데 눈길이 쏠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첫 언급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등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때 광주시와 전남도는 저마다 유치를 위한 물밑 준비 작업을 벌여왔으나 향후 광주전남에 보다 많은 공

공기관이 옮겨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광주전남 거점산업인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산업과 연관성 높은 기관을 유치한다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추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 광주시, 광주전남 분리 방안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도 협력과제로 포함됐다.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 일원에 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정주인프라를 세우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9085㎡, 연면적 2만116㎡ 수준이

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발전재단, 육아지원시설,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 목표다. 이 사업 역시 광주시와 전남도간 엇박자를 났으나 신규 협력과제로 포함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세 단체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적극 협력하고, 2021년까지 지방비를 출연한다는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광주~고흥 우주센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화순-

보성~고흥 나로우주센터 구간에 길이 160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2조 9000억원 규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중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오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광주하남-장성상계 광역도로사업, 광주삼도-함평나산 광역도로사업, 호남고속도로 삼례 IC-광주 TG 구간 확장사업, 2020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제 13회(2020년) 광주 비엔날레 성공개최에도 시·도 협력과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무안 출발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신규 취항

하이난&괌 신규취항 기념 특별할인 혜택!
5% 할인

- 11/8일까지 예약시 - 단, 현금결제 조건
- 하이난 품격, 괌 정통 상품만 적용가능

신규 취항

가족추천여행 **괌**

▶ 12/24,25,26,27,28,29 1/1,2~ 매일출발
정통 괌(성인2+소아2 패밀리티켓) **JEJUair 4일**
669,000부터 +US\$30(성인), \$10(소아) 선택관광 있음

- 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현지 픽업 신청시 2일차 시내(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페리어를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

▶ 12/24,25,26,27,28,29 1/1,2,3,4~ 매일출발
정통 괌(공항->리조트 왕복픽업+아동반값) **JEJUair 4일**
1,08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 공항->리조트 왕복픽업,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페리어를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

신규 취항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 토(6일)출발
알뜰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
199,000부터 +US\$40(5일), \$50(6일) 선택관광 있음

- 무안/하이난(3/4)기내비/무안
- 전 일정 준5성급 호텔(그랜드 매트루 파크 호텔/코니퍼 호텔)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대동해 해변, 푸싱재+열대과일시장, 심야면세점(CDF),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다낭/호이안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정통 54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

- 전 일정 특급 호텔(만리리조트 호텔/동급), 1일 자유시간
- 바나산 국립공원, 대성당, 까오디안고 사원, 내곤고, 편가사당, 풍홍 의정,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 & 열대과일, 노비나 1개(1인당), 카이인 왕복, 후에 왕궁(오로, 태화전, 자금선 등)

다낭/호이안/후에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알뜰 51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

- 전 일정 준특급 호텔(다나시 호텔/동급), 바나산 국립공원
- 대성당, 까오디안고 사원, 내곤고, 편가사당, 풍홍의정,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 & 열대과일, 노비나 1개(1인당), 카이인 왕복, 후에 왕궁(오로, 태화전, 자금선 등)

휴양천국 힐링여행지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초특급 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929,000부터 +US\$3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 11/7,14,21,28 12/5,12 [단, 6회 한정특가]

- 전 일정 초특급 호텔(타이메이 리조트/동급)
- 호핑투어(마무릭섬), 투이안 섀넛낚시, 섀넛 나이트 투어, 비치 샌들, 비치백 중점, 코타키나발루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비비백, 리조트 석식 1회 등, 섀넛 나이트 투어 진행시(섀넛섬+아시안투어+코코넛유를 시음)

코타키나발루(준특급 호텔) JEJUair 5일

알뜰 479,000부터 +US\$3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 11/14,28 12/5,12,19,26~ 매주 목요일출발

- 1일자유+시내관광+악시나이트투어, 링가도 호텔(준특급/동급)
- 아일랜드 호핑, 악시 나이트 투어, 라군파 섀넛보트,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 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현지

즐거자 휴양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세부

세부(솔레아씨부리조트) JEJUair 5일

품격 54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 11/12,19,26,30 12/3,4~ 매주 화,수,금,토요일출발

- NO7기아이드 경비(80소풍&아동반값, 전 일정 5성급 리조트
- 호핑투어, 스톤마사지 1시간, 열대과일시장, 체합다이빙 강습회, 레이크 코 민속공연 관람 및 디너, 코코넛 비누드라이빙&아로마오일, 스낵 바스켓, OFF로션, 막탄 아경장상, 베이비백, 씨푸드 런치, 리조트 석식 1회, 세부 시내관광(산페드로 요새 등) 등

세부(세미팩-소도그란드리조트) JEJUair 5일

알뜰 46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 11/12,19,26,30 12/3,4~ 매주 화,수,금,토요일출발

- 공스타+스테이크+디스커버리투어, 준특급 호텔
- 공스타 45분, 막탄디스커버리투어, 체합다이빙 강습, 세부 시내, 밍고 IKG+열대과일부, 씨푸드 & 스타이크+ 모호도 1잔, 무제한 삼겹살

가성비 마, 여행 최적기에 떠나는 대만

대만(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품격 89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 11/12,13,15,16,19,20~ 매주 화,수,금,토요일출발

- NO7기아이드경비, NO소풍, NO유선
- 전 일정 특급(신타이메이 푸신 호텔/동급), 대표 관광지(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천둥체험-4인1조 황금박물관 관람사기, 총명사 등), 10타워 전망대, 화련국립공원, 전신마사지 1시간, 대만의 유명 먹거리(다구마 사브사, 덤핑 레스토랑, 삼형제, 광도사자락) 등

대만(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

정통 57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 11/12,13,15,16,19,20~ 매주 화,수,금,토요일출발

- 전 일정 준특급 호텔(타이메이 인하우스 호텔/동급)
- 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천둥, 총명사, 화련국립공원, 대만의 유명 먹거리(덤핑 레스토랑, 몽골리인BBQ) 등

가경도환여행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료,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천경보단계] ●여행유의 / ●여행지 / ●항공권 / ●여행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관광(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이 선택시 대체할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이 불포함] [태국]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비 가산제외로만 인입되고 있습니다. ●종교규정: 일반여행업 제47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발매처: 1588-8992 ●여행발매처: 부산항/소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영(방객제)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용에 따라 차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도, 입국권, 숙박권 등은 관세당국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